

특별기고



박 기 정 /완도해양경찰서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으로 섬의 총면적은 5974km로 전 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지역에 비해서 자연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유통,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취약하다. 특히 도서지역의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하여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양면적 4600km의 경비구역과 65곳의 유인도서에 발생중인 응급환자는 도서 주민 고령화, 한정된 여객선 운항 등 원인으로 육지 긴급 이송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 평균 완도서 응급환자 이송률은 해양경찰서 중 전국 2위로, 3년간 총 622명 중 질병 284명(약 45.6%), 사고-외상 208명(약 33.4%), 기타 130명(약 21%)으로 질병에 의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도서지역 응급환자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양질의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1년 3월 닥터경비합정 제도를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노화도에 구조거점과출소 구급직별을 배치하여, 구급 역량 강화로 보다 질 높은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발생한 응급환자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전문의

검수를 통해 완도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서를 자체 제작하여 응급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경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그 것은 바로 응급 의료서비스 예산의 문제이다. 해경청과 소방청은 해상과 육지 차이 외에 응급환자 구조, 응급처치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 중이나 소방청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로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경청은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원 훈령'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와 적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구급인력과의료장비 및 의료품 보급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부서 의료물품 부족과 전문 의료장비 취약 등 구급서비스 저하요인을 해소하고, 해양 특성에 적합한 의료물품과 장비를 도입, 구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완도해경은 적은 예산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완도군)와 협업하여 응급 의료물품을 지원 받아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해경과 소방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 어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보다 오래 걸리는 이송시간에 대비해 주민 자체 응급처

치 방법을 습득시켜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도서지역 응급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과 바다 가족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안전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할 것이다. '爲民獻身 海警本分'(위민헌신 해경본분) 국민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 해경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국민이 해양경찰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도록 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말벌 피해 예방법 숙지를



박 수 현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말벌은 벌집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침입자로 인식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만 벌집에서 멀어지면 추적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벌집의 위치를 파악해 그 장소를 이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벌집이 보일 경우 벌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료수 등 단음식을 주위에 두지 말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및 화려한 색깔의 복장을 피하도록 한다. 벌이 가까이 접근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쫓으려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피하거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때는 우선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피부에 벌집이 박혀 있는지 살펴본다. 침이 피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침을 손톱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침을 피부와 평행하게 옆으로 긁어주면서 제거한다. 핀셋 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의 끝부분을 집어서 제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침이 피부에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벌에 쏘인 자리를 비누와 물로 씻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쏘인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10~15분간 대주어 붓기를 가라앉히면 통증감소 및 독이 퍼지는 걸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존에 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또는 벌에 쏘인 후에 몸이 붓고, 가렵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세,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경련 및 의식저하 등의 전신성 반응이 나타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구토, 설사,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경련 및 의식저하 등의 전신성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매년 벌쏘임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 야외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올해는 더욱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도 많은 대비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미리 주의를 하고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먼저 챙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예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축사 화재 예방 안전관리 수칙**의 시름은 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축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볏짚, 사료 등 가연물이 축사주변에 많이 적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축사 화재의 특성상 많은 가연물질로 인해 현장 출동 소방력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은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이다. > 노후소화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하는 소화기로 교체하자.



김 유 남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말벌 제거는 시기적으로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여름휴가나 벌초를 위해 산을 많이 찾으면서 발생한다. 이 시기는 벌의 활동이 활발하여 말벌에 쏘이거나 벌집을 발견하고 119를 찾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한다. 꿀벌에 비해 많은 독성을 지닌 말벌이 특히 위험하며 이와 관련해 예방법과 응급상황시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일단 벌에 쏘이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선 벌집이 있을만한 장소를 피하고, 벌들이 가까이 있을때는, 최대한 천천히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게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누전경보차단기 또는 아크차단기로 교체하자. > 노후전기 배선을 교체하고 보온 전등이나 배전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자. > 전기용접 작업을 할때는 주변에 짚 등 가연물을 치우고 소화기를 배치해 초기화재에 대비하자. > 축사 동간의 안전거리를 3m 이상 확보하자. > 축사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그라스 울 패널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자. > 건축물 보온재로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패널을 사용하지 말자.

> 화재에 대비해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화재 시에는 청소용 고압세척기를 활용해 화재진압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자. > 소방차가 쉽게 찾아 올수 있도록 입구쪽 도로변에 안내판(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 통로를 확보하자. > 쓰레기 소각장은 건축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자.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생활화해 축사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 호남매일 www.honamaeil.co.kr | 발행·편집인 고계방 | 대표전화 (062)363-8800 | 사 장 실 (062) 363-0027 | 편집국장 최춘의 | 광고국 (062) 363-0005 | 정·경 부 (062) 362-6116 | 편집국(FAX) (062) 362-0078 | 사 회 부 (062) 362-6226 |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 문 체 부 (062) 362-6116 |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3 columns: 지국안내 (Local Office Info), 지사안내 (Branch Office Info), and contact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상무, 서부, 송암, 농성, 진월, 봉선, 중앙, 중흥, 양산, 문암, 오치, 문흥, 일곡, 동운, 두암, 침단, 신창, 월곡, 송정리, 목포, 순천, 광양, 광주,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영암, 장흥, 신안, 강진, 장성, 무안, 여수, 함평, 영암, 진도, 해남, 광산.